

LGD, OLED TV 출시 막바지 단계

한상범 대표, 현재 신뢰성 · 수율 검증 ... 9월 OLED 투자계획 논의

LG디스플레이가 차세대 TV로 주목받고 있는 OLED TV의 연내 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한상범 대표는 8월22일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안에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를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디스플레이의 신뢰성과 수율을 검증하고 있고, 고비는 많았지만 생산준비가 막바지”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주요 부품인 디스플레이 수율문제 등으로 LG전자가 연내 55인치 OLED TV를 양산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범 대표는 “생산을 1-2개월 앞당기는 것보다 생산공정을 확실하게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OLED TV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격이 기존 LCD(Liquid Crystal Display) TV의 1.3배 수준으로 낮아져야 하는데 2015-16년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9월이면 2013-14년 OLED 투자를 준비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3/4분기 흑자전환 여부를 묻는 말에는 “월별로 보면 4월부터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 2/4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3>